

**We are
Future
Makers**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자립을 향하는 **별의 여정** 함께 만들어가는 **우주**

Empowering the Independence and Competencies of
Young Women Transitioning Out of Foster Care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자립을 향하는 **별의 여정**

함께 만들어가는 **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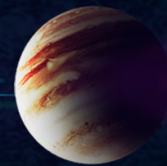
책임연구원
홍승현

연구책임자
홍주은

공동연구원
안지혜

수행기관
(주)진저티프로젝트

연구원
박성은



CONCEPT ✨

Star Birth

We are Future Makers의 임팩트 리포트는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건강한 자립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별의 탄생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무중력 상태로 흩어져 있던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각자의 중력을 만드는 **과정이 설계**되고,
그 과정을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 서로가 **빛나는 별**이 되어,
연대를 통해 **건강한 자립 생태계**를 형성하는
서사를 담았습니다.

본 리포트는 단순한 성과 나열이 아니라,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건강한 자립의 **별이 되어 가는 여정**과
그 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를 처음 만나는 분들과,
본 리포트를 더욱 이해하고 싶은 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We are Future Makers는 본 리포트 전반에서 풀네임과 WFM이라는 약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참 여 자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자립준비 여성청년’이며, WFM은 이들을 ‘퓨처메이커’로 부릅니다.
리포트에서는 서술 맥락에 따라 ‘참여자’, ‘수료자’ 등의 표현과 함께 다양하게 표기됩니다.

운 영 진

We are Future Makers는 ‘한국여성재단’, ‘하자센터(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이하 하자센터),
‘진저티프로젝트’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세 조직의
구성원을 통칭해 ‘운영진’으로 지칭합니다.

서 베 이

리포트에 제시된 정량적 지표는 총 54명의 1·2·3기 수료자가 참여한 온라인 서베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서베이는 수료자들이 프로그램 경험을 돌아보고, 각자가 경험한 변화와 배움을
공유하기 위해 리포트 제작 과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 용

수료자와 운영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회차별 활동 후기,
전체 수료 후기, 내러티브 글쓰기, 온라인 서베이 응답, 성과지표 개발 과정에서 수집된
인터뷰 자료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모든 인용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하나의 공동체적 목소
리로 전달하기 위해 발언자의 참여 기수와 이름 (닉네임 포함)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립으로 향하는 Future Makers의 여정 WFM Impact Journey

한 사람이 경험하는 건강한 변화란 아주 짧고 우연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주체의 맥락이 충분히 고려된
경험의 설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수행하는 변화의 과정, 그리고 변화의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다가올 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그 변화의 전체 모습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We are Future Makers의 첫 기획 과정부터,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함께한 경험과 그로 인해 나타난 주요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와 가능성을 정리한 ‘임팩트 여정 지도(Impact Journey Map)’를 제시합니다. 사회성과 측정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임팩트 체인 모델(Impact Chain Model)과 건강한 자립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된 임팩트 프레임워크(Impact
Framework)를 포함한 본 리포트의 임팩트 여정 지도(Impact Journey Map)인 ‘A Journey of the Stars’를 통해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건강한 자립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전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임팩트 여정 지도를 통해 연구진은 건강한 자립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과 과정, 지표로서의 기준, 프로그램 참여
종료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방향성 등을 공유하여 건강한 자립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시도의 시작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은 먼지뿐이었다”

Star-Dust

무중력 상태로 부유하던 자립준비 여성청년,
‘연결’, ‘현대’, ‘신뢰’의 WFM Universe를 만나다

무중력 상태를 떠돌다

자립준비 여성청년 현황과 지원 공백

안전한 궤도에 진입하다

WFM 여성 커뮤니티

현대의 중력으로 안착하다

운영진의 현대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다

참여자 간 '대화 중심 설계'

미래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다

자립지원금 500만 원

“별이 되기 위해 온도를 높인다”

Proto-Star

워크숍, 탐방, 멘토링 등을 통해 과거를 재해석하고, 진로와 삶의 방향을 그린다.
비슷한 맥락의 여성들과 연결되어 서로의 온기와 에너지를 주고받다

삶의 연대 형성

스스로 발견한 경험과 역량으로 서로의 삶에 기여, 연대

공동체적 참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시도하며 가능성 확장

주도적 삶 설계

장기적 삶의 방향을 스스로 기획

1,000만°C

Life-design

800만°C

일의 탐색

다양한 직업과 업무 환경을 접하며 시야 확장

600만°C

직업 가치관 확립

일에 대한 의미와 개인적 기준을 정립

역량 발견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직업적 맥락에서 인식

400만°C

미래 일경험 준비

목표에 맞춘 진로와 경험을 준비

자기 긍정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출

자기 공감

지난 삶의 어려움들을 따뜻하게 바라봄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편견을 줄임

자기 인식

내면의 감정과 욕구를 발견하고 이해함

Self-caring

*Heat-up

별은 1,000만°C에 가까운 온도에서 도달해야만 탄생할 수 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다”

Star-Birth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며, 일과 삶의 방향을 탐색하고,
결국 삶을 주체적으로 그리며 타인과 연대하는 건강한 자립 역량을 갖추다

Self-Awareness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따뜻하게 해석하며,
스스로 온전하게 그 삶을 수용할 수 있는 힘

96.2%

자기 이해와 돌봄에 도움

96.2%

과거에 대한 긍정에 도움

“삶에 치여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강점을 지녔는지
깊게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는데
나에게 깊은 관심을 쏟는 시간이었어요”

Togetherness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만들어가는 힘

98.1%

다른 참여자와의
연결이 도움 됨

88.5%

이후 새로운 관계를
쌓는데 도움 됨

“자립준비청년들은 현실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기
어렵고, 더 쉽게 고립돼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기
쉽죠. “너희도 연결될 수 있어.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프로그램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Aspiration

나의 일에 대해 마음껏 꿈꾸며 탐색하고,
생계 수단이 아닌 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진로를 찾아가는 힘

92.3%

생계를 넘어선 진로의
가능성 인식

96.2%

직업관 확장

“사실 제게 있어서 일은 돈을 버는 수단 그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다양한 직업군의 자립 선배들
을 보고 단순한 일을 넘어 삶과의 연관성을 이어서 생
각해보게 되었습니다”

Resilience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실행과 회복의 힘

98.1%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도움 됨

75.9%

건강한 자립에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다른 회
사로 이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
보다 급여는 적지만 하고 싶었던 일이라 하루 하루 재미있
게 일하고 있습니다.
WFM에서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하고,
스스로 물어보며 찾아낸 해답인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생태계를 이루다”

Into the Galaxy

후속 네트워킹을 통해 연대를 지속하며,
자립준비 여성청년 생태계의 확장을 경험하다

“WFM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중에 연락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솔직히 가정사나 그런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부터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소속감이 진짜 말도 못 하게 컸던 것 같아요.
나만 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튀어나온 모서리 같이 느껴져 외로웠는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만으로 안정을 많이 찾았어요”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간호사, 온라인 쇼핑몰 하는 분, 밴드 하는 언니 다들 너무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되게 멋있고 제가 살고 싶은 삶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팽창하고 확장하는 연결

기수를 거듭하며 신뢰와 입지가 커지며 지원자의 꾸준한 상승과 추가 연결 발생

‘함께 서는 자립’의 표준

관계 속 돌봄과 연대를 통한 새로운 자립 패러다임 제시

개인에서 생태계로

관계와 경험이 지속·확산되어 자립준비 여성청년 생태계 형성

닿지 못한 곳까지

수도권 외 지역·지원 사각지대로 프로그램 확장 가능성

Contents

Prologue · 함께 서는 자립, 그 여정의 기록

Program Overview · 프로그램 개요

Perspective · 프로그램 지향점

Chapter 1.

WFM Universe

무중력 상태의 자립준비 여성청년, 새로운 우주를 만나다 · 13page

1. 무중력 상태 : 자립준비 여성청년이 마주한 상황
2. 구조적 공백 :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지원체계의 부재
3. 새로운 우주 : WFM의 특징과 차별점

Chapter 2.

WFM Journey

건강한 자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다 · 24page

1. 별 형성과정 : WFM 주요 진행내용
2. 온도의 상승 : WFM 진행과정의 의미

Chapter 3.

WFM Impact

건강한 자립 역량으로 빛을 발하다 · 37page

1. 변화의 파장 : WFM 임팩트 체인 모델
2. 별의 조건 : WFM 임팩트 프레임워크
 - Self-Awareness 자기 인식 및 돌봄 역량
 - Togetherness 관계 및 신뢰망 형성 역량
 - Aspiration 진로 탐색 삶의 방향 설정 역량
 - Resilience 주체적 실행과 미래 실현 역량
3. 끝없는 연대 : WFM 임팩트 의의

Chapter 4.

Beyond WFM

우리가 만든 연대의 우주를 넘어 · 60page

1. 계속되는 우주 : WFM 임팩트 확장

함께 서는 자립, 그 여정의 기록

세상에는 혼자보다 함께 걸을 때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We are Future Makers(이하 WFM)는 지난 3년간,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그 길 위에서 서로를 만나고, 지지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 온 여정입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그저 또 하나의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서 퓨처메이커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계 속에서 자립을 준비하며,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를 그리고 도전하는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WFM이 함께 걸어온 길과 그 속에서 발견된 변화들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통계나 지표를 넘어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과정, 퓨처메이커들이 경험한 순간들, 그리고 그 경험이 만들어 낸 파장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이 앞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 함께 서는 자립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 업 명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핵심가치

환대

신뢰

연대

목표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역량
강화 지원**

샤넬의 후원을 받아 한국여성재단이 진행하는 We are Future Makers(이하WFM)는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 연결되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강한 자립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자립지원이 경제적 자원 확보와 취업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형태에 머물렀다면, WFM은 참여자들이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통합적인 여정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내면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단계(Self-Caring), 다양한 일과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Work-Mapping),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는 단계(Life-Design)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마다 건강한 자립의 각 단계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워크숍, 강의, 현장 방문, 멘토링 등이 촘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퓨처메이커들이 스스로 필요한 영역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과 후속 모임을 통해 장기적으로 서로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기간 1기 : 2022년 1월 ~ 12월 | 2기 : 2023년 1월 ~ 12월 | 3기 : 2024년 1월 ~ 12월

수료인원 총 84명 (1기 : 25명 | 2기 : 29명 | 3기 : 30명)

진행장소 하자센터 999클럽 및 다양한 일의 현장

주요혜택 • 10회차 교육 프로그램
 - Self-Caring :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
 - Work-Mapping : 직업관 형성과 진로탐색
 - Life-Design : 주도적 삶 설계와 실천
• 자립지원금 500만 원
• 네트워킹 및 후속 모임 지원

참여기관 주최 : 한국여성재단
 후원 : 샤넬
 협력 단체 : 하자센터(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진저티프로젝트

We are Future Makers :
오늘의 변화를 통해 내일의
건강한 자립을 만든다

함께 서는 자립,
여성 커뮤니티의 힘

지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 청년들

자립으로 나아가는
배움의 여정

연결 중심의 새로운
자립 패러다임

WFM은 '함께 서는 자립을 통해 오늘의 변화를 만들고, 내일을 빛내는 Future Maker로 성장한다'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서로의 연결과 신뢰를 쌓으며, 그 기반으로 내일의 건강한 자립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WFM의 핵심 목표로 하였습니다.

홀로 서는 방식이 아닌 '함께 서는 자립'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성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커뮤니티로 운영되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회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관계망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며,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프로그램 전 과정은 퓨처메이커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자 주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을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방향에 참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자립지원금 사용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수동적인 위치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취업이나 주거 문제 등에 대한 해결보다는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이해하고 설계하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돕는 여정을 설계했습니다.

Self-Caring, Work-Mapping, Life-Design이라는 3단계 여정을 기반으로, 퓨처메이커들은 자기 인식, 신뢰 관계 형성, 진로 탐색, 주도적 실행이라는 자립의 핵심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워갑니다.

이러한 경험은 청년들이 자신의 내일을 창조하는 Future Maker로 성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존의 '홀로서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자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여성 청년들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건강한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이 모델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변화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Chapter 1

WFM Universe

무중력 상태의 자립준비 여성청년, 새로운 우주를 만나다

★ Star-Dust

별이 탄생하기 전, 우주는 고요한 무중력 공간에 가스와 먼지가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 우주 먼지들은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전까지는 서로 이끌리지 못한 채 흩어지고 부유하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머문다.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 또한 이와 닮아 있다.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 단단히 응집되고 빛을 내기 위해선, 그들을 끌어당기고 연결해 줄 '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을 사회라는 우주 속에서 둥둥 떠다니게 만든다. 우리는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의 이러한 무중력 상태를 다섯 가지 '무(無)'의 상태로 보고, 이 지점에서부터 변화의 시작을 만들고자 했다.

1. 무중력 상태: 자립준비 여성청년이 마주한 상황

우리가 만난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은 부모님이 아닌 다른 가족, 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쉼터와 같은 다양한 보호체계 안에서 돌봄 선생님들의 곁에 의지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자신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한 채 건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방향을 잃은 채 부유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발판을 찾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여성’이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교차적 어려움

여성이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두 정체성이 겹칠 때, 안전, 정신 건강, 사회적 낙인, 경제력 형성 등에서 이중적인 취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 여성청년은 보호 종료 시 성적 학대, 착취, 높은 임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며 (Foradada-Villar, M., 2025), 같은 환경의 남성보다 심리적 문제에 취약했습니다. (Hagleitner, W., 2022).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차점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가 낮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입니다.

“매년 자립에 대한 정보나 가이드북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중에서도 여성들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야 할지 고민한 시간이 있었어요. 20대 여성청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생애 주기에 있잖아요.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가 스스로 자립해서 그게 직업이든 학교든 처음에 경험하는 것들이 자기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러한 여성 생애주기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지 맥락화하고 언어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어요.”(관계자 인터뷰, 한국여성재단 장근영 팀장)

2)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부재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취약하여, 보호 종료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통로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온전히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이게 되며, 이는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면서 첫 사회 경험의 시기에 필요한 또래나 좋은 어른들과의 다양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곧 사회 전체와의 단절을 심화시킵니다.

실제로 자립준비청년의 61.6%가 1인 가구로 일반 청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으며(이상정, 2021), 믿고 의지할 조연자나 멘토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호 종료 이후 시설 교사나 위탁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지고(이상정, 2021), 친밀한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보람, 2024).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경험이에요. 그 이유가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밖에 사회는 어떤지 몰라요. 솔직히 안에서는 항상 보는 사람만 보니까요. 사람 대하는 방법 등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 갔을 때 인간관계를 맺는 법이나 예절 같은 것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설에 있을 때는 주먹다짐으로 해결하기도 했는데,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저티프로젝트, 2023 자립준비청년 생활환경 연구)

3) 심리·정서적 지지기반 부족

심리·정서적 안정성은 사회 진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산이지만, 자립준비청년은 취업 실패, 불안정한 주거, 경제적 어려움 등 반복되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게 하는 안정적인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자립 가능성을 낮춥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5.6점)는 일반 청년(6.8점)에 비해 낮으며, 최근 1년 내 극단적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한 비율은 18.3%로 전체 청년(2.4%)의 7배 이상입니다.

또한 평생 한 번 이상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은 46.5%로 전체 청년(10.5%)의 4배 이상이며, 은둔 경험 비율도 10.6%로 전체 청년(1.7%)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오혜정, 2025).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졸업생 중에서 진짜 안 좋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정이 없는 분들을 보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보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진저티프로젝트, 2023 자립준비청년 생활환경 연구)

4) 진로 탐색 기회의 제약과 방향성 부족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빠른 자립을 위해 당장의 생계를 위한 직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들은 시설과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성인들의 직업 외에 다양한 진로에 대한 간접경험이 부족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탐색 기회 없이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진로교육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서정, 2023).

한 국내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발달의 특수성을 다양한 진로 탐색 및 경험의 박탈, 진로 정보 획득 기회의 결핍, 물질적 독립이 최우선되는 진로 선택,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상실로 인한 진로 불안, 자기 이해와 내적 탐색 기회의 부족으로 정리하였습니다(최서정, 2023).

“보육원 출신 친구들은 고교 진학 때 특성화 학교를 보내요. 직업이라도 가지게 해서 먹고살게 해야 한다는 접근인데요. ‘먹고살아야 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시설 안에 있는 청년들 누구라도 ‘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진저티프로젝트, 2023 자립준비청년 생활환경 연구)

5) 주거·금융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부족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 생활에서 자립에 필요한 금융 지식, 재무 관리, 생활 기술,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실제 실행·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독립을 맞이합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자립지원금의 액수가 지자체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계획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최서정, 2023).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막연한 두려움 속에 주거, 금융과 같이 삶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거나, 가까운 이들로부터 쉽게 사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세상에 나왔어도 그것 가지고 그냥 친구들 환심 사고 끝인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도 낳아준 사람인데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네. 또 떼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집을 구해야 하니까 월세 내다가 그 돈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 지혜롭게 무언가 처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진저티프로젝트, 2023 자립준비청년 생활환경 연구)

2. 구조적 공백: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지원체계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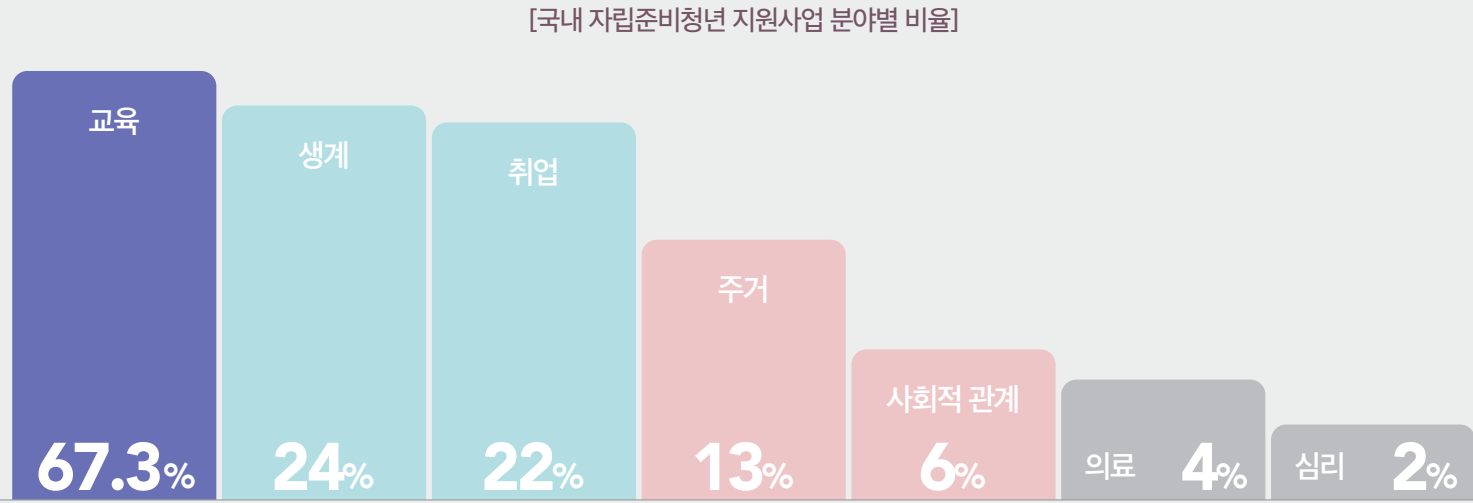
자립준비 여성청년은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존 지원체계는 각 청년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크고 포괄적인 형태의 접근만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일회성의 지원과 단편적인 형태의 교육 혹은 정보 전달이 건강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삶을 이끌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수집된, 두드러지는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준비 여성청년 대상 프로그램 부재

WFM이 시작된 2022년, 국내에는 자립준비 여성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습다. 영국의 경우, ‘Sister System’과 같이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기 멘토링 및 웰빙 중심의 특화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Care to Career’ 같은 프로그램들이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의 직무 진입과 자신감 조성,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책·연구·지원 체계 전반에서 이들만이 가진 특수성, 맥락이 만들어내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서적·사회적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지원 부족

아름다운재단의 『2023 자립준비청년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96개 중 심리지원 사업은 2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은 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 생계 지원, 취업과 교육, 주거 등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출처: 아름다운재단, 2023 자립준비청년 임팩트 보고서

충분한 진로 탐색과 고민의 기회 부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들은 빠르게 고용 상태에 진입하는 것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육지원사업 또한 단순 지원금 지급이나 금융·생활 관련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진로와 비전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였지만, 이들 또한 다양한 직업관을 확장하거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정보 전달의 편중, 사각지대의 발생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장학 사업과 금융·주거 정보 교육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하였지만, 지원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시설에서 보호받은 청년들은 비교적 정보 접근성이 높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룹홈이나 가정위탁과 같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의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지원 기회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박우림, 2023). 그 결과,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중 일부에게만 정보가 전달되어 반복 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 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나 기간이 지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국내 자립준비청년 교육지원 내용 분류]
(2023 기준)

분류	개수
교육비 지원금	13개
금융/경제 교육	6개
진로·비전 교육	3개
종합 자립/생활 교육	2개
멘토링/관계망 지원	2개
법교육	1개
어학교육	1개
IT/기술 교육	1개

출처 : 아름다운재단, 2023 자립준비청년 임팩트 보고서

3. 새로운 우주 : WFM의 특징과 차별점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마주친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WFM의 운영진들은 이전과 다른 방법과 접근을 통해 이들이 효과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1) ‘여성 커뮤니티’라는 안전한 궤도에 진입하다

WFM은 자립준비 여성청년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WFM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진과 멘토들 역시 여성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섭외하여 참여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 이기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더욱 안전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동안 다른 곳에서 나누기 어려웠던 나만의 고민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와 연결은 수료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경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자립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립감과 불안을 완화하고, 필요할 때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궤도가 형성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성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연애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을 해치는 방식의 연애를 하기가 쉽잖아요. 최대한 건강하고 독립적인 관계 맺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이에 여성들이 모였을 때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어디서 듣기도 힘든 얘기에요.” (관계자 인터뷰, 하자 센터 호른)

“여자들끼리 한다는 거, 그게 저는 좋았거든요. 같은 성별이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희 다 알아요. 처음 보자마자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말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해줬어요. ‘나는 사춘기나 2차 성징이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돼서 도와주고 싶어’라는 말을 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남자인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면 절대 말 못 할 일이지만, 여자인 친구들끼리라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참여자 인터뷰)

2) 운영진이 만든 ‘환대’의 중력으로 커뮤니티에 안착하다

WFM의 또 다른 차별점은 ‘환대’였습니다. 운영진은 참여자를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이고 존엄한 개인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운영진은 이러한 환대의 관점을 공유하며, 역할과 소속을 떠나 각 참여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부터 수료 이후까지 참여자의 필요를 듣고 기획에 반영하며, 매 기수마다 참여자의 관점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왔습니다.

수료자들은 이러한 운영진의 노력을 충분히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고, 의무적인 일로서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의 만남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환대의 중력을 통해 각 청년들은 WFM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모이고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결국 좋은 기억이요. 그때 꽤 괜찮았는데, 그때 되게 환영받았고, 다들 잘해줬는데... 이런 정도만 있어도 사회에 대한 신뢰, 자기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관계자 인터뷰, 하자센터 아키)

“특히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환대받는 그 에너지. 퓨처메이커스에서 가장 좋고, 계속 신경 쓰고자 하는 게 그 환대의 분위기였어요.” (관계자 인터뷰, 한국여성재단 장근영 팀장)

“선생님들의 친절과 저희를 대해 주시는 모습들이 사업참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좋게 해주신 것 같아 그 점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인터뷰)

“이 활동을 이후로 꼭 자립을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덜었어요. 운영진들은 매 주 만날 때마다 반겨주며 별일은 없었는지 걱정해 주고, 고민이 있다면 편히 얘기해달라고 말씀 주시는 등 매번 의욕적이셨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말씀드리면 참여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참여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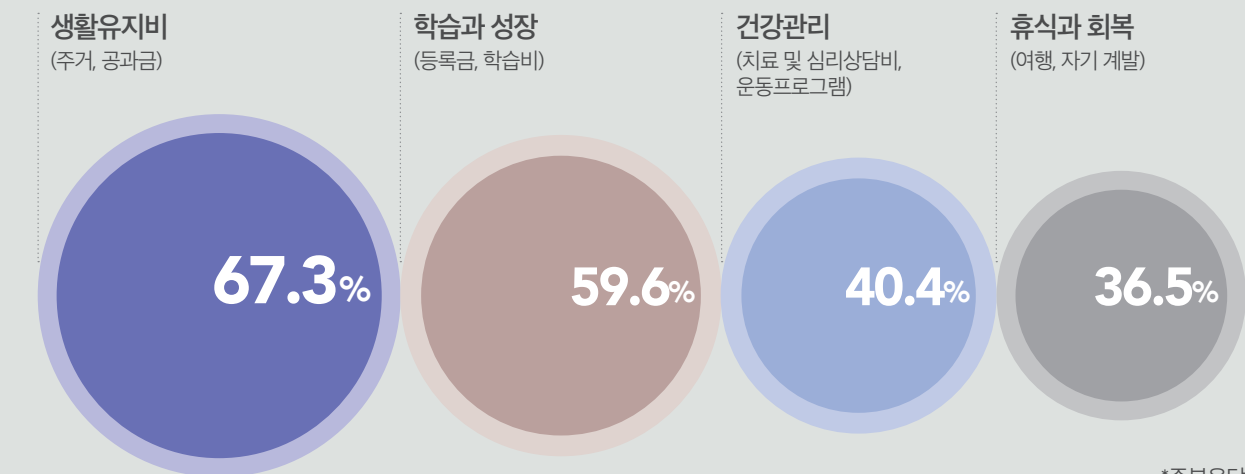
3) 신뢰가 담긴 ‘자립지원금’으로 도전의 에너지를 얻다

WFM 수료자들이 참여과정 전반에서 가장 만족하며 다른 지원 경험과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한 요소는 자립지원금이었습니다. 운영진은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증빙 서류 없이, 참여자가 직접 계획한 지출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신청 및 진행 과정 중 금융 교육을 병행하며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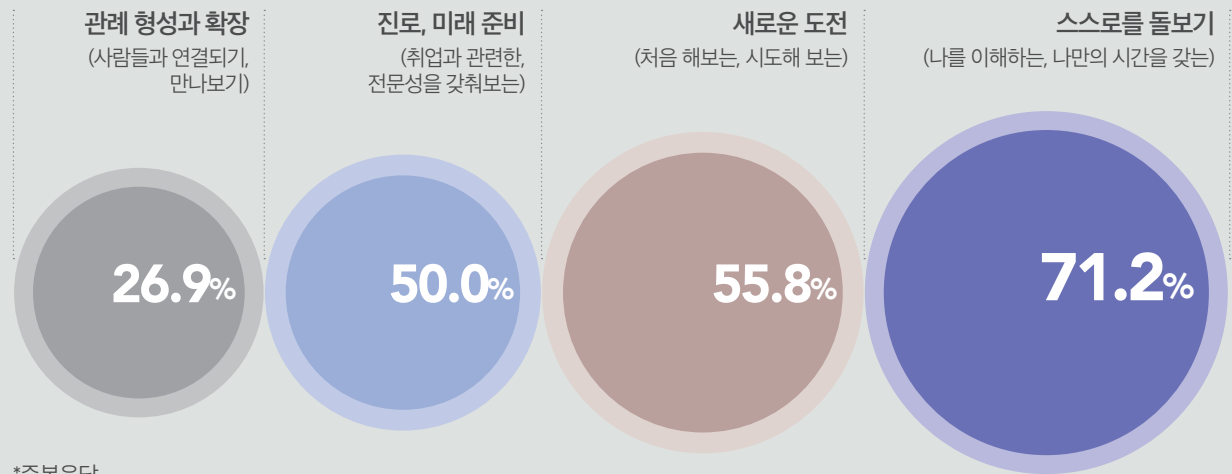
이러한 지원금 지급의 과정은 금전적 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당신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자율적인 지원금 사용 권한은 청년들의 자기 주도성을 자극했고, 스스로 삶에 필요한 것을 판단하며 그 결정에 따라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자립을 향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꾸 자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할 때마다 나는 이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롭잖아요. 한 번쯤은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된 거죠.” (관계자 인터뷰, 하자센터 흐른)

[수료자 지원금 주요 사용처 구분]



[지원금 활용 경험의 의미]



‘신뢰의 표시’인 자립지원금

“지원금을 그렇게 믿고 주는 곳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받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봐라. 나 진짜 잘하지 않았냐. 잘하고 있지 않냐. 당신이 주는 기대에 부응해서 나 이만큼 했다.”

진짜 해야 할 고민을 하게 해주는 ‘심리적 여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이 되니까 심리적인 여유가 되더라고요.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두 달 월급의 수준이죠. 다른 준비하면서 그만큼 벌려고 하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생각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기회’

“미래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WFM을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지원할 때만 해도 저는 그냥 학교만 다닐 뿐이지, 제 미래나 진로나 이런 거 방향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금으로 막연하지만 한번 영어 학원도 다녀보고, 일본어도 배워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서핑 같은 것도 도전하고 해 보니까,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필요해 ‘보이는 것’ 말고 정말 ‘필요한 것’

“지원금을 막상 쓰려고 하면 제약이 많았어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필요가 있는데, 지원금으로는 수료증이나 증빙이 나오는 게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WFM은 이 금액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 줘서 좋았어요. 저는 자격증이 아니라 진짜 언어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언어교환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사용했는데요. 결국 그 지원금 사용 덕분에 지금 회사에 입사한 거예요.”

4) 참여자 간 ‘대화 중심 설계’로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다

WFM의 설계 핵심에는 ‘관계’를 중심에 둔 구조가 있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는 주제에 맞는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매 기수마다 대화를 통한 피어러닝(Peer Learning, 또래학습)과 연결의 필요성을 꾸준히 표현했습니다. 이에 운영진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들 사이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매 회차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개인의 경험을 존중받는 과정을 반복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참여자들은 일방적인 학습이 아닌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공감과 지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대화 중심의 경험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이어주며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남모르는 사회에서 내 경험을 그대로 얘기해도 괜찮고,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환대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이들한테는 긍정적인, 혹은 살아가게 하는 힘(임파워링)으로 남아 있을 것이어서 그런 경험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관계자 인터뷰, 하자센터 거품)

“상호의존적 자립. 건강한 자립이라는 게 사실은 의존하는 자립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사는 힘이, 내가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소통하면서 나의 아쉬운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힘은 확 떨어졌을 거잖아요. 이들은 그 안전망이 되게 취약하니까 그 현실 세계에 대한 감, 관계에 대한 감, 상호 의존에 대한 감, 이런 것이 떨어질 때 더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WFM이 하는 일은 단순한 취직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관계자 인터뷰, 하자센터 아키)

Chapter 2

WFM Journey

건강한 자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다

Proto-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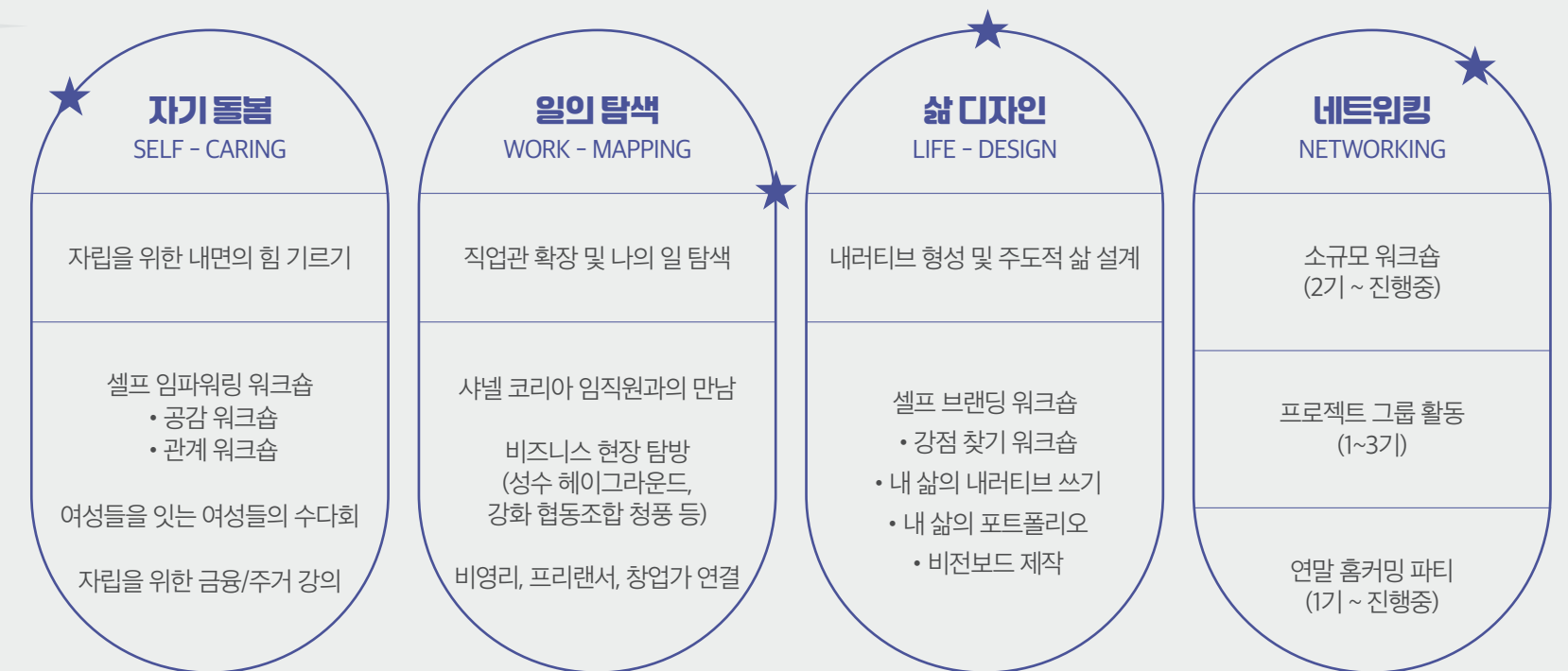
중력에 이끌려 밀도 있게 모인 우주 먼지들은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어 원시별(Proto-Star)이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별은 아직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내부의 열에너지는 계속해서 축적되고 온도는 높아져야 한다.

WFM의 과정은 바로 이 '온도를 높이는 시기'와 닮아 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참여자들이 모여
생각과 감정, 배움을 나누며 시야를 넓혔고,
깊어진 관계 속에서 온기와 에너지를 주고받았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새로운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건강한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 별 형성과정: WFM 주요 진행내용

WFM은 10회차로 구성된 교육이나 활동을 넘어, 건강한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며(Self-Caring), 삶의 방향을 찾고 일과 관계를 탐색하며(Work-Mapping),
결국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타인과 연대하는(Life-Design) 과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Self-Caring은 건강한 자립의 첫 걸음으로, 내면을 이해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돌보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오랫동안 정서적 지지와 보호 경험이 부족했고, 홀로서기라는 압박 속에서 쉽게 지치곤 했습니다.

WFM은 이런 현실을 넘어 스스로를 환대하고 돌보며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1

셀프 임파워링 워크숍 (공감, 관계 워크숍)

참여자들은 ‘느낌과 욕구 카드’를 활용해 자신의 삶을 키워드로 안전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극적인 듣기와 공감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삶이 더 깊이 이해되고, 넓게 해석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고민이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수용되었고, 동시에 자신도 타인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그인 파티를 포함한 관계를 형성하는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은 처음 만나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해 공유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첫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하지 않던 깊은 속내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던 그 상황이 제게 너무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저의 고민과 근심도 상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

여성들을 잇는 여성들의 수다회

관계와 사랑을 주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서는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겪게 되는 관계적 어려움을 다루며 건강한 관계 설정과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의 경험뿐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등 한 여성으로 살아가며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를 돌아보며, 나를 해치지 않고 보호하면서도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착한 여자친구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건 내게 독이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여자친구가 되려고 하기보다 애인과 내가 그저 존재와 존재로 만날 수 있게 노력해보고자 해요.”

3

자립을 위한 금융/주거 강의

WFM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며, 자신에게 맞는 재정 관리와 자기 돌봄 방식을 익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 능력을 키우며, ‘나는 존중받아도 되는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안정과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함께 서는 자립’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과 잘 관계 맺는 법, 동네에서 내 안전지대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 직접 겪어보며 터득한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꿀팁들이 기억에 남아요.”







10회차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진이 예상하지 못했던 형식과 주제로 연결이 이루어지며, 퓨처메이커들 간의 유대감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WFM 진행 과정에서 설계된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들은 자율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나 여행과 같이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부터,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 사용된 경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영진이 미리 설계한 과정이 아닌,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연결을 이어가며 진행된 프로젝트 그룹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전반의 능동성이 향상되었고, 누군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만난 친구들이랑 모여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동안은 매번 보던 친구, 그래서 어쩌면 새로움이 없던 관계들만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게 기분 좋죠.”

1 프로젝트 그룹 활동

2 소규모 워크숍

10회 차의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미니 회차들이 운영되었습니다. ‘자취 꿀팁 워크숍’은 각자가 생활 속에서 터득한 실용적인 팁과 유용한 생활용품들 서로 공유하는 피어러닝(Peer Learning)의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요리 워크숍’에서는 간단한 요리를 배우고 실습하는 것을 넘어, 음식에서 시작된 독립생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WFM에 함께한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은 훌륭하고 유명한 강사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경험과 배움이 충분히 다른 이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새로운 방식의 참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저도 아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 거 말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서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되게 잘 들어주고 좋아하니까 내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뿌듯했어요.”

3 연말 홈커밍 파티

WFM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는 연말 홈커밍 파티입니다. 기수를 넘어 모든 수료자가 모여 한 해를 함께 축하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자리가 매년 11월 열립니다. 수료자들은 여름을 함께했던 동기들과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수고를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또 다른 기수와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WFM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이 한층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홈커밍 파티는 수료자들에게 여전히 자신이 WFM Universe에 속한 하나의 별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며, 더욱 강한 연대를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좋은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얻었어요. 사회에서 항상 긴장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밑바닥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나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단단하게 더 긴장하면서 살았는데, 웬지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항상 밖에 나와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몸살 걸리듯이 아프다 쓰러졌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가더라고요. 긴장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들은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뭔가 다 알아줄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되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거 되게 나한테 필요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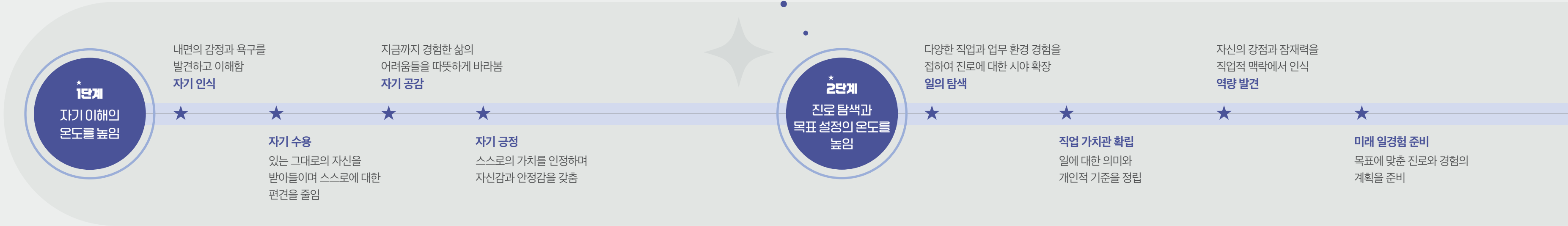
2. 온도의 상승: WFM의 경험설계

We are Future Makers의 진행 과정은 각각의 지점이 분절되지 않고, 건강한 자립으로 향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열 번의 정규 회차와 추가적인 활동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건강한 기반을 다지고, 이어 자신만의 빛을 내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스스로의 결정과 목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경험을 쌓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는 동안 참여자들은 하나의 별로서 빛을 내기 위한 적정 온도까지 각자의 속도와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프로그램 기획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큰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지점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pter 3

WFM Impact

건강한 자립 역량으로 빛을 발하다

★ Star-Birth

중심부의 온도가 임계점을 넘으면,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한다. 그 빛은 자신만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을 비추며 또 다른 별의 탄생을 이끈다.

이러한 별의 탄생은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의 시작점과도 같다.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며, 타인과 연대하고, 일과 삶의 방향을 탐색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도전하는 다층적인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각자의 고유한 '빛'으로 드러났다.

이 지표들은 프로그램 수료라는 기록을 넘어, 참여자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1. 변화의 파장: WFM 임팩트 체인 모델



WFM Impact Chain Model

Activity	Output
자립준비 여성청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자 중심 프로그램 기획	수료자 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스스로 자립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	84명 (수료율 99%)
커뮤니티 형성 삶을 나눌 수 있는 또래와 좋은 어른들과의 연결 경험	자립지원금
네트워크 확장 지원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선배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연결과 관계 확정의 기회 마련	420,000,000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기수별 피드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WFM으로 함께한 시간
경험 기반 학습과 개선 매 기수 운영 경험 분석을 통해 선발 기준, 교육 내용, 참여방식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운영의 점진적 진화 구조 마련	136시간+
자율적 참여 구조 설계 참여자들이 스스로 주체를 선택하거나 그룹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 보장	퓨처 메이커스와 함께한 어른들의 수
	80명+

Outcome	Impact
Self-awareness (자기 인식 % 돌봄 역량)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고, 나의 모습 그대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 4.67 / 5.0	나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삶 만큼이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데 도움 4.79 / 5.0
“외면하고 있던 나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결국 나를 마주보게 되는 건 나니까 받아들이려구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답게 진짜 살아가려고요.”
Trust (관계 및 신뢰망 형성 역량)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어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98.1%	프로그램 이후, 연결이 일어난 경험 평균 2.4명 이상 연결이 일어난 인원 평균 수치
“누군가와 교류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는 걸, 어쩌면 꽤 좋다는 걸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멘토예요. 많은 지원을 받은 만큼, 저도 동생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 있을테니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봐야죠.”
Aspiration (진로설계 및 삶의 방향 설정 역량)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닌,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찾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직업의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 96.2%	일을 단순한 생계의 도구가 아닌 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92.3%
“누군가와 교류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는 걸, 어쩌면 꽤 좋다는 걸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마 놓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나의 진로를 설계하고 찾아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어요.”
Resilience (주도적 삶 설계 및 실천 역량)	나의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거나 이미 도전 중인 일을 계속하는 데 도움 98.1%	“저는 이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맴돌지 않아요. 그건 이제 필요한 친구들에게 기회가 가야죠.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자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본 리포트에서는

임팩트 체인 모델(Impact Chain Model)을 통해 WFM에 투입된 다양한 자원들이 어떻게 건강한 자립을 향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는지(Activity),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은 만들어 냈는지(Output), 그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변화는 어떤 모습이었는지(Outcome) 그리고 그 변화가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각자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We are Future Makers의 맥락에서 이 모델은 새로운 자립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서는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Activity

자립준비 여성청년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생활 기반 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며, 또래와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전문가, 선배 청년과의 연결을 통해 지지적 커뮤니티와 새로운 기회를 확장합니다.

동시에 운영진은 매 기수의 경험과 피드백을 분석하여 선발 기준과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지속될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Output

84명 수료자(수료율 99%), 자립지원금 4억 2천만 원 규모의 지원, 136시간 이상 프로그램 참여 시간, 그리고 80명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의 연결 같은 지표들은 활동이 남긴 구체적인 흔적입니다. 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프로그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 기회와 자원을 제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본 리포트에서 주목하는 80명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연결의 내용은, 수료자 수만큼이나 많은 수의 좋은 어른들이 참여자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Outcome

참가자 개인이 경험한 내적·외적 변화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평균 4.67점), 나의 삶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확신(평균 4.79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다시 사회적 네트워크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프로그램 이후에도 평균 2.4명 이상의 수료자들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응답을 통해 이러한 연결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는 직업의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을 받은 비율이 96.2%, 일을 생계 도구 보다는 가능성으로 바라본 비율이 92.3%에 달했습니다. 이는 WFM이 직업 교육 효과를 넘어 삶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맞물려 참여자들은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도전이나 지속적 도전에 도움을 받은 비율이 98.1%이라는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act

WFM 참여자들이 경험한 변화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려는 결단, 받은 도움을 다시 후배 세대에게 나누려는 의지, 스스로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 도전하는 힘, 그리고 자립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 자리 잡는 주체적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건강한 자립이라는 최종 목표와 맞닿아 있으며, '나의 성장'이 '우리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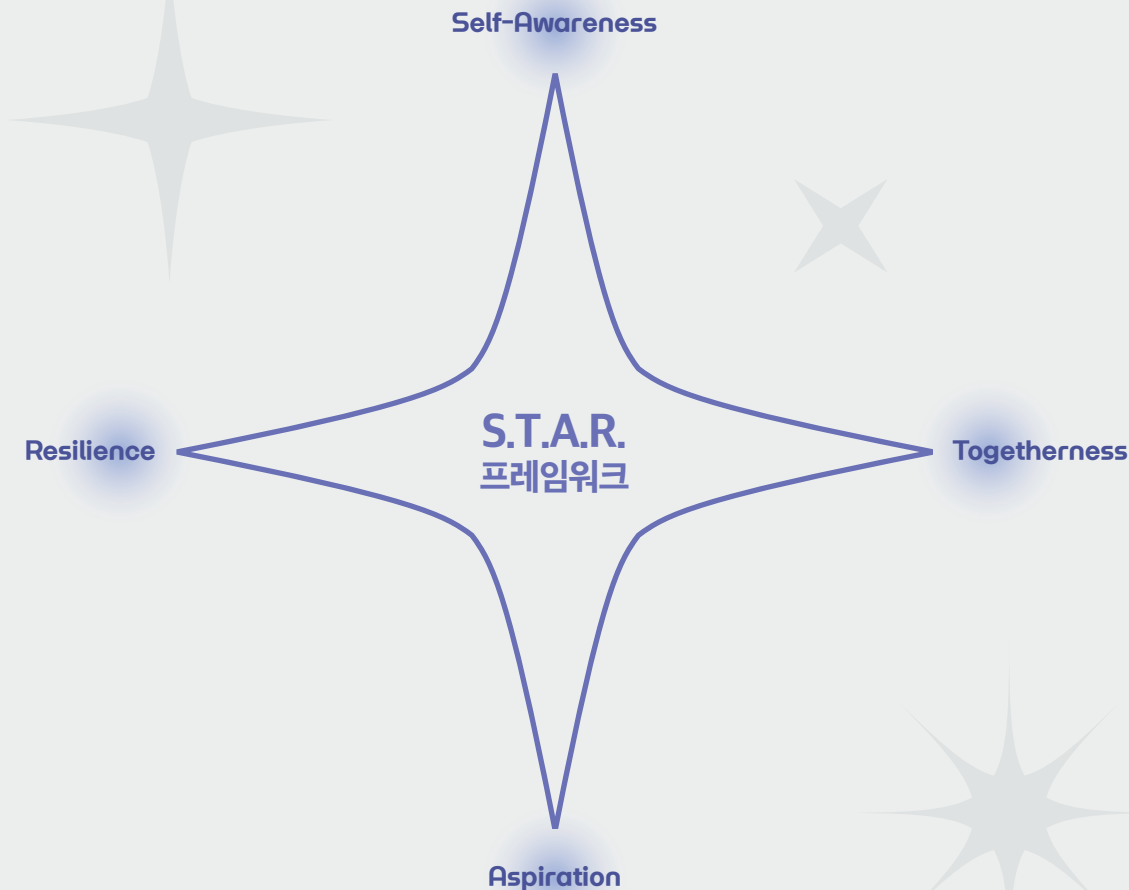
이처럼 임팩트 체인 모델은 참여자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가치와 연결 짓는 언어로 작동합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단절된 지점이 아닌 연속적 흐름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성장 경험이 공동체와 사회의 자산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 별의 조건: WFM 임팩트 프레임워크

건강한 자립의 지표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기준

자립은 일자리를 갖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립은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상상하며, 이를 스스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자립 지원은 생계와 기술 교육에 치중하면서 이러한 내적 성장과 주체적 실행까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We are Future Makers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회복하고 사회와 건강하게 연결되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S.T.A.R. 프레임워크 : 자립을 밝히는 네 갈래의 빛

S.T.A.R. 프레임워크는 건강한 자립을 이루는 네 가지 핵심 역량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힘

감정과 경험을 인식하며, 삶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을 만드는 힘입니다.

함께 설 수 있는 관계 자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또래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의 연결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건강하게 연결되는 역량입니다.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가능성을 탐구

생계 해결의 수단을 넘어 나의 가능성이자 꿈에 대해 탐색하고 결정하는 힘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힘

감정과 경험을 인식하며, 삶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을 만드는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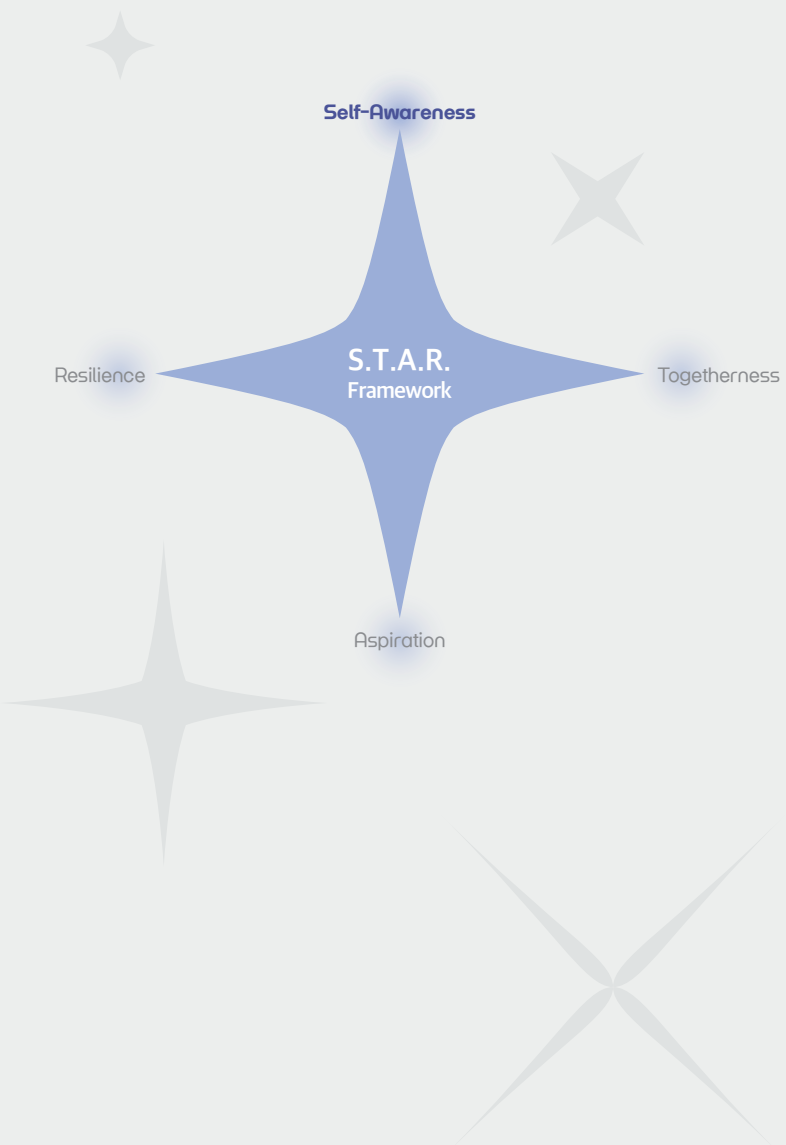
평가 도구를 넘어, 성장 여정을 담은 언어

S.T.A.R. 프레임워크는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성장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이자, 건강한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구조화하는 틀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는 참 여자들이 경험한 변화를 드러내고, 그 변화가 어떻게 건강한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립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요 역량 지표 : S.T.A.R. Framework]

카테고리	지표	세부 항목	기대 성과
Self-Awareness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 역량)	자기 돌봄 역량 학습	자신에게 적합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이해의 폭 확장
	긍정적 자기 인식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	
	자기 이해 심화	자신의 가치관, 경험, 한계를 돌아보며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	
Togetherness (건강한 관계망과 신뢰 구축 역량)	또래 관계망 형성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경험과 삶을 공유하며,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또래 관계망을 형성	신뢰할 수 있는 또래, 어른들과의 지지망 형성 함께 배우고 도전하며 관계 속에서 안정감 확보 고립된 삶을 벗어나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경험
	안전한 커뮤니티 경험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연결되고, 안전하고 지지적인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경험	
	공동체 의식 형성	연결과 대화를 통해 공동체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	
Aspiration (진로 탐색과 삶의 방향 설정 역량)	진로 탐색	진로와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일에 대해 고민	다양한 일과 진로의 세계 탐색 새로운 진로 발견과 경험의 가능성을 확장 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직업관을 정립
	일의 가치 이해	생계 수단이 아닌 꿈과 가능성으로서 일과 진로를 이해	
	직업관 확장	새로운 직업 및 분야를 탐색하며 자신만의 직업관을 형성	
Resilience (주체적 실행과 미래 실현 역량)	회복탄력성 이해	삶의 어려움과 실패를 만났을 때,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자원을 이해하고 활용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인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과 성취를 위해 노력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음
	도전 및 성취 의지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하고 싶은 영역을 탐색하고, 가능성을 모색	
	미래 설계 자신감 및 주도성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하며 실행	



Self-Awareness

자기 인식과 돌봄 역량

모든 별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빛난다.

넓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 중 그 어느 별도 서로 똑같은 별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각 별은 그 별의 존재 자체로 고유한 빛을 냅니다.

건강한 자립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빛을 다른 이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별의 모습을 이해하고, 나만이 낼 수 있는 빛을 주고받으며 반짝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우주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시작점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이후의 선택과 실행 역시 자기 고유의 궤도를 따라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무언가를 쌓아주려고 합니다. 돈을 잘 모은다면, 적당한 직업이 있다면, 오늘 하루 잘 수 있는 방이 있다면 그들의 자립은 곧 이뤄질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어떤 귀한 재료로 지어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얼굴조차 모르는 부모의 가명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였고, 또 어떤 친구는 가장 가깝게 마음을 둔 친구에게조차 할머니 손에 자란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FM의 운영진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지원도 결국 그 청년이 자신의 삶을 주인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환경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용기 내어 꺼낸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연결과 소통, 만남이 '함께 서는 자립'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We are Future Makers로 함께한 청년들은 이러한 고민과 노력을 잘 이해했고,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과정을 수료한 96% 이상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공유한 이 경험이,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가치 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더 편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한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통해 오늘의 내가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 보았고, 진심이 담긴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나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부정적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았으며, 지난 나의 모습을 직면하며 어제의 나에게 위로와 전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Self-Awareness는 중력 없이 떠다니던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이 건강한 자립을 통해 별이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가 되는 역량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따뜻하게 해석하고, 스스로 온전하게 그 삶을 수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처음으로 나에게 던져본 질문들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져본 건 이번 활동하면서 처음이었어요. 매시간 다른 주제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평소엔 나를 그렇게 깊이 들여다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좀 회피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답해지지 않도록. 나 잘 사는 사람인가?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그런 생각을 깊게 안 했어요. 근데 WFM은 활동할 때마다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반복해서 그 질문지들에 대한 답을 써 내려가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하나씩 뭐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스스로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멀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공항장에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려면 늘 안정제를 먹고 갔을 만큼 긴장도 불안감도 높았어요. 저는 제가 너무 싫었나 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가 너무 밍기도 했고요. 저는 저를 다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10회 차가 모두 끝난 지금, 저는 원했던 바를 80%가량 이룬 것 같습니다! 남은 20%는 제 스스로 부딪혀보면서 더 찾아나갈 거예요.”

나는 진실로, 충분히 멋지고 좋은 사람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제가 저를 알아봐 주었으면 했어요. 일상에서 항상 그렇게 세뇌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해서요. 활동이 마무리된 지금은 더 이상 세뇌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란 걸 알았어요.”

나의 지난 삶을 재해석해보는 경험

“일단 보육원이라는 곳에 대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분명 보육원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고, 지금의 제가 존재해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보육원이란 곳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내비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위탁가정인 제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척하는 스스로가 안타깝고, 속상했으며, 온 힘을 다해 키워주신 할머니께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번 활동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활동하며 부모님 존재의 유무는 중요한 것이 아닐뿐더러 사람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Togetherness

관계 및 신뢰망 형성 역량

별은 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주의 별들은 대개 주변의 가스와 먼지, 다른 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상호작용은 서로의 흐름을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자립의 과정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안정할 수 있는 궤도가 신뢰의 끈을 통해 안정되고, 그 끈을 따라 정보·기회·응원이 흐르며 다음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계는 선택의 질과 회복 속도를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자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떤 일도 혼자 할수록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지원’은 종종 그들이 혼자 있어도 괜찮게끔 만들어주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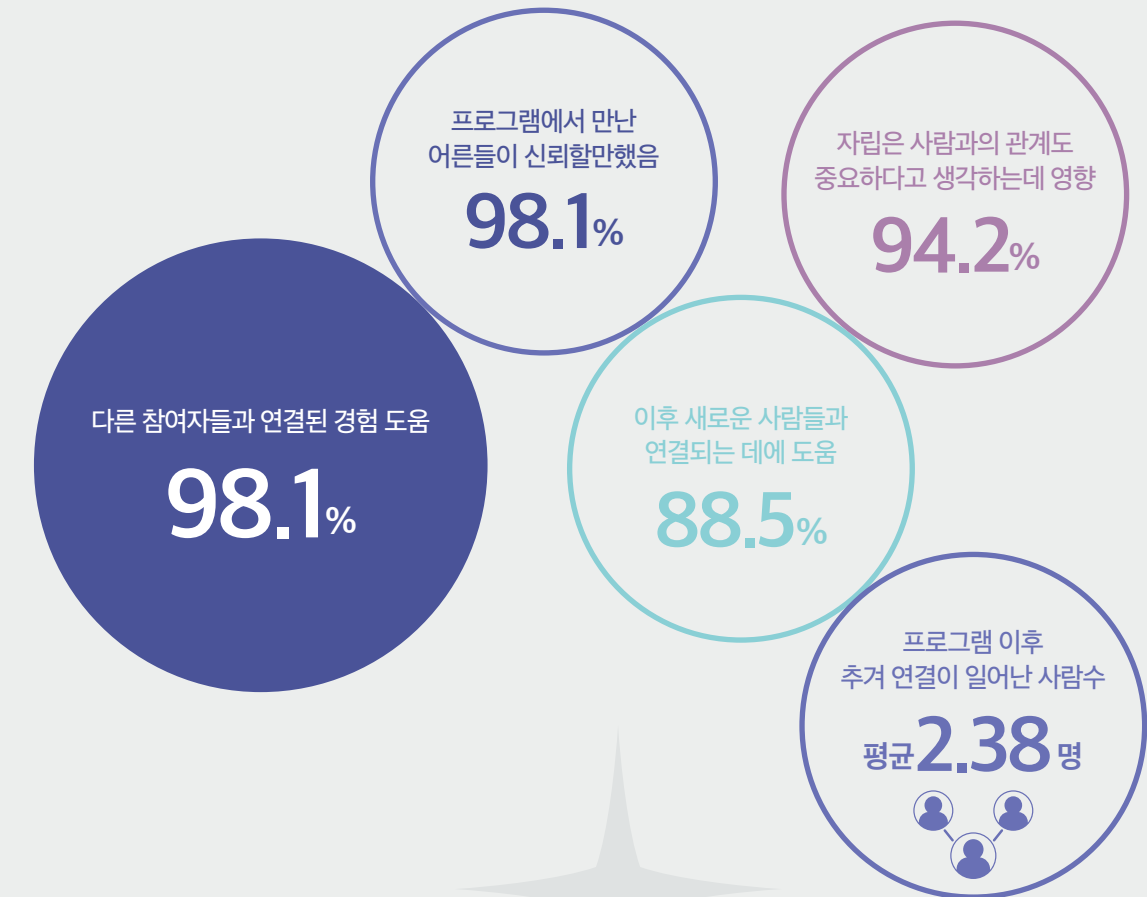
관계적 자립이란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그 어떤 타인도 필요치 않고, 내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에는 그 누구의 기여도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의 삶에 기여했는지 알고 고마워하며,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힘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FM도 같은 방향에서, 청년들에게 건강하게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도저히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받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함께한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은 지난 참여 경험을 ‘신뢰와 응원,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답했습니다. 98% 이상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다른 참여자들과 연결되는 경험이 전체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답했으며, 같은 비율의 수료자들이 운영진, 강사진을 비롯한 어른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성청년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에 대해 도움을 받았고, 자립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WFM에 함께했던 몇몇의 청년들은 각자가 경험한 저마다의 일들로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삶에 대한 영감과 응원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른 이를 신뢰해 볼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주위 사람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맥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Togetherness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자립과정에서 오히려 고립으로 빠지지 않고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누군가를 신뢰해 보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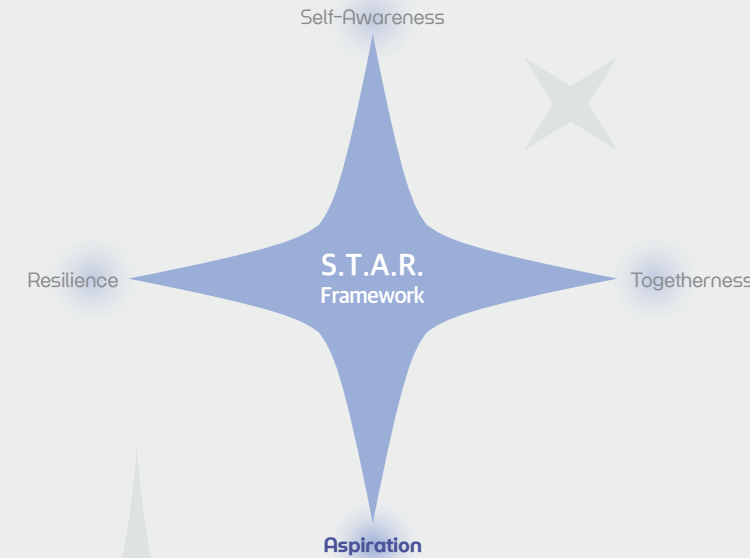
“그래도 누군가와 교류하는 게 나빠지는 않다는 걸, 어쩌면 꽤 좋다는 걸 다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응원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청년들끼리도 서로의 모습을 보고 삶을 공유하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응원도 해주고, 그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일을 설명할 때 반짝반짝하거든요.”

타인과 연결되는 감각

“성인이 되고 나서 제 자신이 예전보다 차가워지고 주변에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껴졌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타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있는지, 나와는 어떻게 다른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Aspiration

진로설계 및 삶의 방향 설정 역량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별은 만들어지고 있다.

별의 탄생은 두꺼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는 압축, 충돌, 재배열과 같은 격렬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입니다.

진로를 세우는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당장 결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보 수집과 자기 탐색, 시도와 보류의 반복이 축적될 때 비로소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WFM은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의미 있는 준비’로 인정하며, 각자가 자신의 궤도를 잡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탐색의 장을 열었습니다.

‘일’이라는 한 글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을 찾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일을 그만두는 것도 어느 하나 간단하고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과 성취, 그리고 어려움과 극복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자립준비 여성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일은 ‘생계’와 ‘생존’이라는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고, 몇 개 되지 않지만 웬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막연히 괜찮은 것 같은 직업 몇 가지 중 하나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를 하기로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패하면 아무도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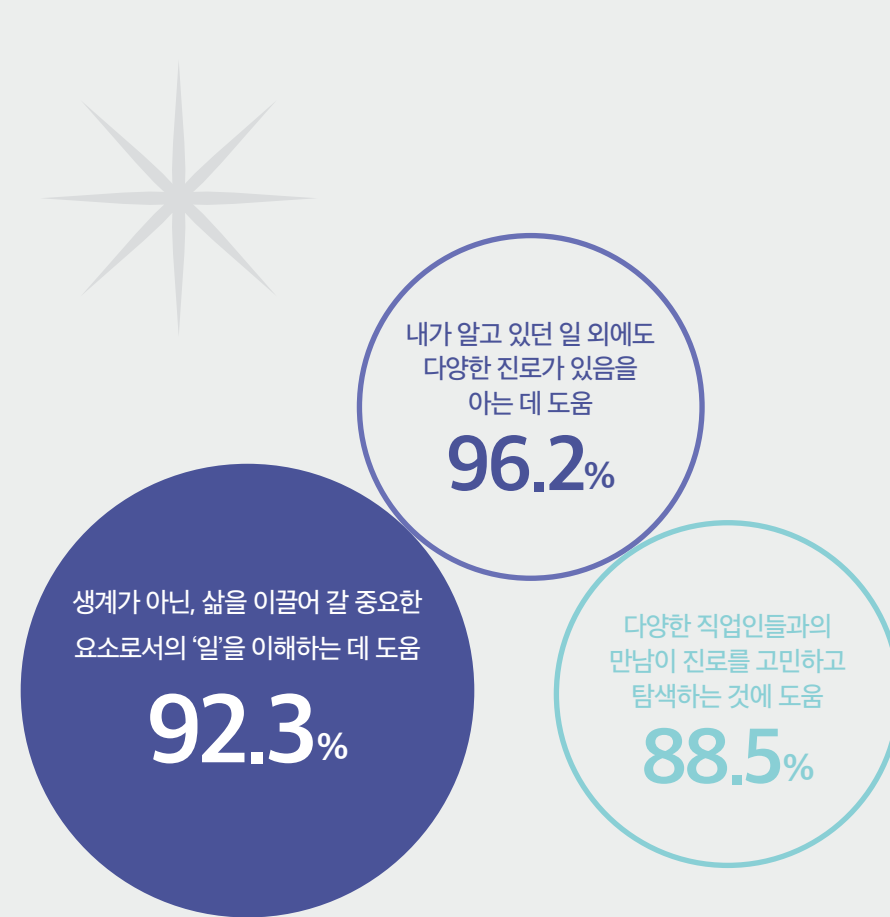
것 같아서 일이 맞지 않거나 일터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꼭 참고 지내보았습니다.

WFM은 직업을 구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들이 가진 ‘일’에 대한 관성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세계 그 너머에 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글로벌 기업부터 비영리, 소셜벤처, 로컬, 창업 등 다양한 직업인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일의 세계를 확장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일해온 순간들을 같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난 경험이 나에게 어떤 배움과 성장을 주었는지 해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관심이 없었던, 심지어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직업군의 다양한 인생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직업인들을 만나면서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이라는 것이 생계의 수단을 넘어 미래의 꿈과 가능성이 되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나의 태도와 관계 맺는 것에 고민이 있던 청년은 선배 직업인으로부터 꼭 필요했던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Aspiration은 이와 같이 나의 일에 대해 고민하며 탐색하고, 마음껏 꿈꾸며 기대하고, 생계 수단이 아닌 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진로를 찾아가는 역량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자신이 열망하는 스스로의 역할과 자리를 찾아가고 성취하는 것이 이들을 더욱 건강한 자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꿈을 꾸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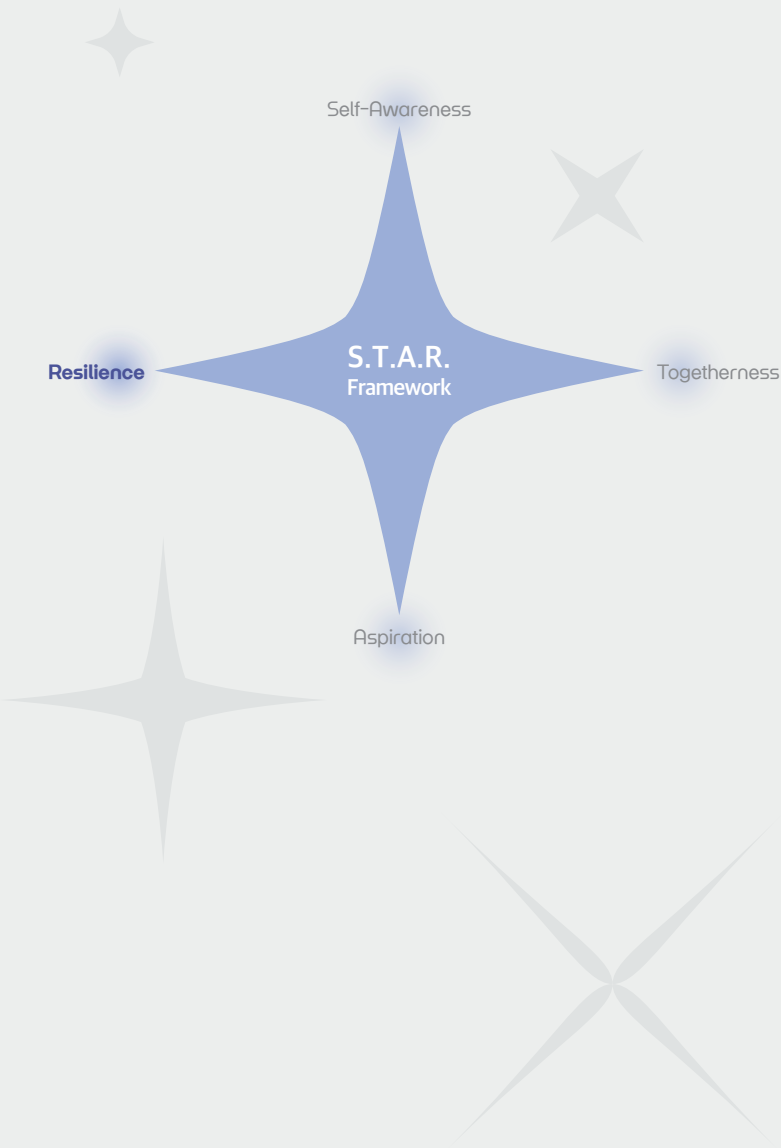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꿈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공부’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내 꿈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저의 꿈을 키울 새로운 방식과 그것에 대한 더 소중한 마음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막연했던 사회 생활과 진로 준비에 도움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건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현직에 계신 분과 직접 만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필요한 역량, 스펙 부터 상사로서 팀원이 어떤 태도일때 좋았는지 여러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서로를 촉진하는 연결의 경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퓨처메이커스 하면서 배운 게 저는 정말 많은 편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욕심이 났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Resilience

주체적 실행과 미래 실현 역량

별이 그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낼 때, 비로소 별은 탄생한다.

별은 오랜 시간 가스와 먼지를 모으며 그 내부에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힘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형태를 완성하고, 빛을 발산할 때 비로소 우주 속에서 고유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청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그려보고, 그 그림 속으로 한 걸음씩 실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만의 색과 빛을 가진 존재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주체적 실행’의 에너지는 진정한 하나의 별다운 모습을 갖추는 마지막 점화이자, 스스로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모퉁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볼썽사납게 굴러 떨어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툭툭 털고 일어나, 연고를 바르고 우리는 또 다음 걸음을 걸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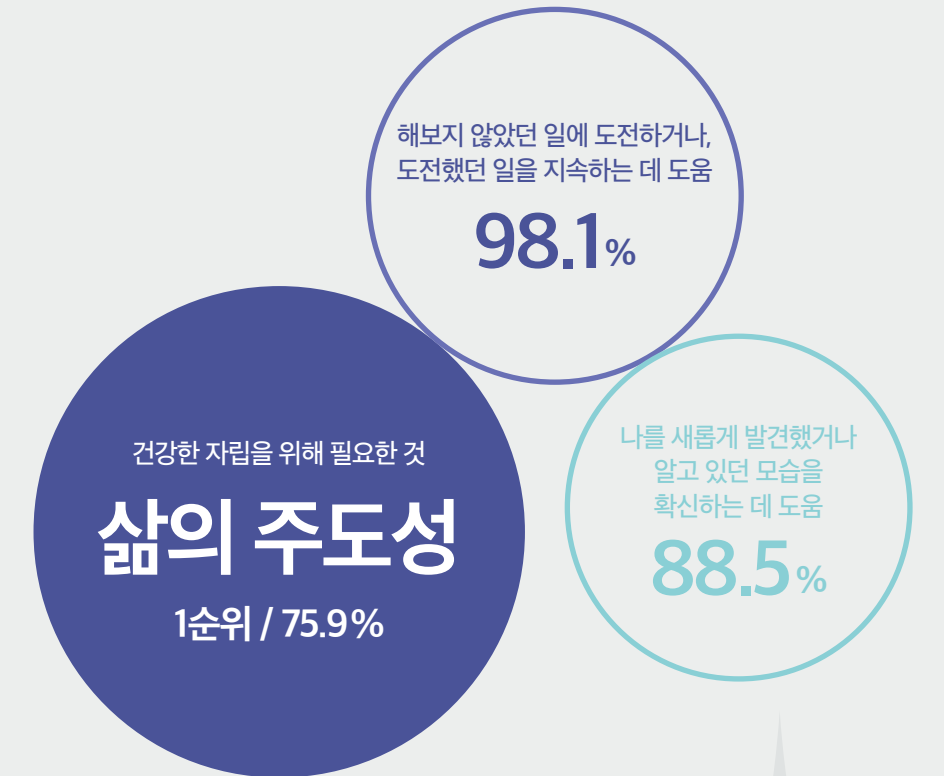
하지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감각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들어야 한다는 누군가의 조언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스스로의 염려가 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고 도전하며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일찌감치 주저앉혀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FM는 이들이 얼마든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정리하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었고, 지금 내가 꿈꾸는 삶은 어떤 모습이고 시간이 지나서 더 성장한 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마음껏 상상하고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자들은 We are Future Makers의 경험을 통해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이미 느끼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이미 도전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나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수료하고 난 이후 많은 여성청년들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진로에 도전하기도 했고, 그동안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일을 내려놓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Resilience란 이렇게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실행과 회복의 역량입니다.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 힘차게 다음 걸음을 내딛을 용기를 낼 때, 비로소 건강한 자립으로서의 마지막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찾을 경험자본의 축적

“17살 때 시설에 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에 대안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로 학업 준비하고 대학교까지 가고 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퓨처메이커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학교에 다녔던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요. WFM 안에서 알찬 경험을 했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경험들이 저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는 계기도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에 대한 기준의 변화

“미래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기준도 살짝 바뀐 것 같고. 전까지는 경제적인 자유가 항상 행복의 일순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졸업해서 취업하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퓨처메이커스 하면서 말했듯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아닌 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외활동을 하다 보면서 전공이라는 게 내가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전공에 대한 집착을 조금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발견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금융권 회사에서 2달 전까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회사 부서는 디지털 사업부서이지만 그 안에서 ‘자립준비청년’, ‘쉬었음 청년’을 중심으로 디지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전 회사보다 급여는 적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에 하루하루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퓨처메이커스에서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스스로 물어보며 찾아낸 해답인 것 같아요.”

3. 끝없는 연대: WFM 임팩트 의의

WFM에서의 시간은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넘어, 서로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감각과, 혼자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길을 걸어온 또래를 만나면서, “나만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형성된 소속감은 긴장과 경계를 풀어주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곁을 지키는 힘

참여자들이 형성한 관계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삶의 크고 작은 순간을 나누는 ‘내 편’이 생겼습니다. WFM 알럼나이는 매 년 홈커밍데이와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직업과 삶을 살아가는 선배와 친구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각자의 미래를 그려갈 새로운 그림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선택과 도전을 응원하며, 때로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이나 기술 습득을 넘어, 자립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지와 연대’라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종종 길을 잃게 만듭니다. WFM은 그런 순간에 “아니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매주 만날 수 있었던 기회, 닥네임으로 나누는 대화, 매주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 그리고 자유로운 지원금 사용 구조까지 이 모든 경험이 서로를 연결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힘을 얻었습니다.

빛으로 이어지는 여정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We are Future Makers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낸 별이 주변의 별을 비추듯, 이곳에서 빛을 얻은 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청년을 비출 것입니다.

작은 별들이 중력으로 모여 하나의 성단을 이루고, 수많은 성단이 모여 은하를 형성하듯, 우리의 연결은 더 넓고 단단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서로의 곁을 지키며 쌓아 올린 관계는, 한 사람의 자립을 넘어 모두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We are Future Makers가 만들어온 이 연대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길을 함께 걸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커뮤니티

“소속감이 진짜 말도 못 하게 컸던 것 같아요. 아는 자립준비청년이 아예 없었고 이런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말해도 다들 모르고 그래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나만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튀어나와 있는 모서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청년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안정을 많이 찾았던 거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엘에이치 주거 혜택도 그렇고 이런 자립 준비 청년 행사들도 그렇고 일반 친구들이랑 말 못 할 고민을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내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랑도 나중에 막 연락해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옛날 가정사나 그런 거 솔직히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런 데서 만나서 비슷한 맥락의 사람 이랑 같이 이제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하니까 통하는 게 뭔가 많잖아요.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또 맺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나부터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카페도 너무 비싸서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지원금도 준다 하고, 간호사 하는 언니도 있었고, 온라인 쇼핑물을 한다는 언니도 있었고 아니면 밴드를 하고 있던 언니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멋있고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삶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이 뭔가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퓨처메이커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돕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업들이 학업, 진로, 자격증, 의료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퓨처메이커스는 그에 더해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감각이 있어야 현재를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야 비로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대’와 ‘가치관의 확장’을 경험

“다른 프로그램이 과제를 해내는 느낌이라면, 퓨처메이커스는 소속감을 주는 사업이었어요. 자주 만날 수 있었던 점, 닉네임으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한 점, 매주 자리배치를 바뀌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넓혀갈 수 있었던 점, 자유로운 지원금 사용 구조 등 이 사업의 목적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연대’와 ‘가치관 확장’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Chapter 4

Beyond WFM

우리가 만든 연대의 우주를 넘어

★ Into the Galaxy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별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모여 거대한 은하를 이룬다.

은하는 각기 다른 별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빛의 합으로 존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서도 서로를 비추고 지탱하는 하나의 생태계가 된다.

WFM 이후의 자립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에서 쌓인 신뢰와 지지의 관계는 활동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속 네트워킹 및 개별적인 연결의 자리를 통해 지속되고 확장된다.

여러 기수를 거쳐 형성된 자립준비 여성청년의 연대는
‘함께 서는 자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새로운 확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은하가 팽창하며 새로운 별들을 품듯,
WFM은 더 많은 청년들이 연결과 환대 속에서
스스로의 빛을 낼 수 있도록 그 우주를 넓혀가고 있다.

계속되는 우주: WFM 임팩트 확장

끊임없는 연결로 성장하는 ‘WFM Universe’

WFM은 계속해서 연결되며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우주를 지향합니다. 이미 퓨처메이커들은 같은 기수 안에서, 또다른 기수와 함께 끊임없이 그 관계의 우주를 넓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WFM의 밖에서는 퓨처메이커로서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지원자들이 WFM Universe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1기 지원자 대비 4기 지원자 수 28% 증가).

‘하나의 별’에서 ‘모두의 우주’로

퓨처메이커 한 사람이 경험한 건강한 변화는 모두의 변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WFM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우리가 만드는 경험들은 다양한 채널로 공유되며, ‘함께 서는 자립’에 대한 다양한 지원주체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수료자들 역시 자신의 여정을 지속하면서 그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건강한 자립에 대해 나누며, 자립 생태계 곳곳에 퓨처메이커들의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별이 다른 별을 비추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모두의 우주를 만들어 갑니다.

‘아직 닿지 못한 곳’까지



WFM에서 축적된 운영진의 경험과 운영의 형태는 앞으로 더 많은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나 기존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관계망 형성, 신뢰 기반 지원, 확대의 문화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검증된 WFM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면, 아직 이 기회를 접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함께 서는 자립’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서로 연결되고 지지받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든 ‘우리의 우주’



We are Future Makers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여성의 연대를 통해 ‘함께 서는 자립’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퓨처메이커들은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자립의 여정을 계속하는 끝에 각자의 모습대로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우주를 더욱 넓고 견고하게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써 내려간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의 자립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롭게 쓰일 것입니다.

참고문헌

- 오혜정 교수. (2025년). [기고] 자립준비청년 - 지원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KSA 뉴스. <https://www.ksva.co.kr/KSVAnews/?bmode=view&idx=162492213>
- 최서정. (2023).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각하는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주은, 박선자, & 홍승현. (2023). 2023 자립준비청년 생활 환경 연구. 기쁨나눔재단.
- 이상정.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개선의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펀크 제410호.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745>
- Noh, D., Kim, E., & Kim, G. (2024). Experiences of Independent Living among Female Youths after Leaving Out-of-Home Care in South Korea: A Phenomenological Study.
- 최보람, & 이재림. (2024).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세계 속 실존 체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Human Ecology Research, 62(2), 279-294.
- Foradada-Villar, M., & Sala-Roca, J. (2025). Young Women in Foster Care: Social Support Capital as an Empowerment Resource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in Intimate Partner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12.
- Hagleitner, W., Sting, S., & Maran, T. (2022). Socio-economic status and living situation of care leavers in Austri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42, 106620.

- Drive Forward Foundation. (n.d.). THIS IS ME: From care to independence as a woman in the UK. <https://driveforwardfoundation.org/this-is-me-from-care-to-independence-as-a-woman-in-the-uk/>
- Drive Forward Foundation. (2017). This Is Me campaign. <https://driveforwardfoundation.org/this-is-me/>
- Sister System. (n.d.). About us. <https://www.sistersystem.org/>
- Spark Sisterhood & Care Leaver Covenant. (n.d.). Care to Career : Empowering young women from care into the workplace. <https://mycovenant.org.uk/care-to-career/>
- Smart Works. (n.d.). Care leavers programme. <https://smartworks.org.uk/programmes/care-leavers/>
- 김지선. (2023)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 박우림. (2023년 5월 16일). [위기의 청년-자립준비청년④] 그룹홈·위탁가정 등 보호유형 따라 정보·지원도 차이 커. 워라벨 타임스. <https://www.wlv.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216>
- 아동복지법, 법률 제18449호, 제3조, 제16조, 제16조의3 (2021.9.24.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 (2023, 6월 26일).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호대상 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작성자: 류인경(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0&list_no=376885&mid=a10412000000

**We are
Future
Makers**